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3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7월 모의고사 4~9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노자는 도(道)란 개체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원리로, 개체들 이전에 도(道)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장자는 『제물론』에서 도(道)는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다녔기 때문에 생겨난 것처럼, 도(道) 역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체들 사이의 관계의 흔적, 혹은 소통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도 도(道)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입장을 ㉠ 지녔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를 통해 대상을 구분할 때, 대상을 구분하는 이름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에 따라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대상과 이름 사이의 관계는 특정 공동체의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그 결과 대상들이 마치 실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 여겨졌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자는 ㉢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부여한 이름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의 속성과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도(道)가 사후에 생성된다는 장자의 주장처럼, 왕충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의미 역시 사후에 결정되며 ‘하늘의 뜻’과 같이 자연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미리 정해져 있기에 인간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충은 『논형』을 통해 자연재해가 인간을 비롯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재해는 하늘의 뜻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늘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왕충은 하늘의 작용이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사람의 삶도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벼슬하느냐 못하느냐는 한 사람의 재능에 ㉣ 달린 것이 아니라, 같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만나는 시대에 따라 출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재능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하면 등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

플라톤은 사물보다 사물의 의미가 미리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물에는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부여한 ‘필연적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 역시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던 원자들이 우연히 마주쳐 응고되면서 생성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루크테리우스는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

이 원자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서로 평행하게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때 수직 낙하하던 원자들 중 하나의 원자가 평행 상태가 깨져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 미세한 편차로 기울게 되면 결국 옆의 원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 마주침으로 인해 수많은 원자들이 연속해서 마주치게 되면서 원자들이 응고되고 그 결과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는 한 원자에서 발생한 미세한 편차를 ‘클리나멘’이라고 명명했는데,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은 미리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작자가 필연적 의미에 따라 세계를 형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루크테리우스의 생각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한편 기계 발명 및 기술 혁신을 계기로 발생한 산업 혁명 이후 크게 발달한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심각한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에 일부 철학자들은 경제적인 것이 인간 사회의 구조 및 역사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고 주장하며,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이미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르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자본주의는 곧 인류 역사에서 ㉤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알튀세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구조와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한 가지 원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루크테리우스의 철학에 영감을 받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흐름은 정해진 역사 발전의 수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18세기의 이탈리아가 자본과 기술, 노동력처럼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 갖추었음에도 자본주의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많은 요소들이 우연히 마주치고 응고되어야 자본주의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만약 이 세계가 선재된 하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간은 이미 방향이 제시된 역사의 흐름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형성의 우연성을 주장한 루크테리우스와 알튀세르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새로운 마주침’을 시도함으로써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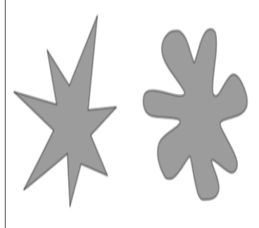
- ① (가)는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지닌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나)는 사물의 의미에 대한 대립적 견해를 제시한 후 그 견해들을 절충한 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도를 바라보는 사상가들의 논쟁을 소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세계 형성의 근원을 밝힌 사상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우연성을 중시하는 사상가의 입장과 그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를 소개하고 있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충은 자연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삶이 분리되었다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였다.
- ② 서양 철학에서는 제작자나 필연적 의미를 통해 세계의 형성을 설명하려는 사상이 존재하였다.
- ③ 장자는 ‘도’의 생성을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길이 생기는 것에 비유하며 ‘도’와 개체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 ④ 인류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역사의 발전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⑤ 알튀세르의 사상은 인간이 정해진 역사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 주었다.

6. ㉠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내용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뇌과학자인 라마찬드란과 후바드는 사람들에게 왼쪽 그림의 두 도형을 보여 주며, 각각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와 도형을 짝짓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 실험 결과 95%의 실험 참가자들이 곡선 형태의 그림을 ‘부바’, 삐죽삐죽한 형태의 그림을 ‘키키’라고 선택하였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모국어어를 사용하며, ‘부바’, ‘키키’라는 명칭이 자신의 모국어에 없는 경우에 ㉡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유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실험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부바’와 ‘키키’라는 소리를 만들 수 없으면 ㉢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 ① ㉠은 대상에 부여된 이름이 그 대상과 필연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 ② ㉡는 대상들을 구분하는 언어가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한다.
- ③ ㉢는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의해 대상의 의미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④ ㉠과 ㉡는 대상의 속성이 대상을 지칭하는 소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와 ㉢는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대상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장자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7. 루크테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플라톤’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계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자가 낙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 ②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도 원자들이 존재하려면 원자들의 존재 의미보다 원자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 ③ 원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없다면 평행하게 떨어지던 원자에서 클리나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원자들이 마주치거나 응고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 ⑤ 클리나멘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마주침이 다른 마주침으로 이어지려면 수많은 원자들이 이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

8. <보기>는 동서양 철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사물은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물은 원인이 없는 생성될 수 없으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물의 생성 원리이다.

ㄴ. 사람들이 밭고 개미를 밟고 지나가서 죽일 수 있다. 물론 사람들의 밭고 밟히지 않은 개미는 다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단지 사람의 밭고 개미가 우연히 마주쳤는지, 혹은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는지에 의해 나타날 뿐이다.

ㄷ. 왕이 바르지 않은 정치를 행하려고 하면 하늘이 이상 현상을 일으켜 경고하여 다가올 위험을 알려준다. 경고를 했는데도 고칠 줄을 모르면 사변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재앙이 일어난다.

- ① ㄱ에 제시된 사물의 생성 원리에 대한 인식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시각과 상충되겠군.
- ② ㄱ에 제시된 원인에 관한 시각은 노자가 제시한 ‘도’가 개체들보다 선재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ㄴ에 제시된 결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는 왕충이 주장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ㄴ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에 대한 서술은 루크테리우스가 제시한 세계의 형성 과정과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ㄷ에 제시된 사변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알튀세르가 제시한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에 대한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견지(堅持)했다
- ② ㉡ : 간주(看做)되었을
- ③ ㉢ : 좌우(左右)되는
- ④ ㉣ : 소멸(消滅)될
- ⑤ ㉣ : 구성(構成)했음에도